

3

---

# 이웃과 함께, 세계와 함께, 대구가 함께



## 【3장을 열며】

조선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대구를 무대로 펼쳐진 교류와 연대, 소통의 역사를 살펴보고, 대구를 사랑한 외국인들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 본다. 아울러 신라의 역사 속에서 국가 간 교류의 발자취를 만나 보기로 하자.

1. 세상과 이웃을 향한 소통의 도시, 대구
2. 국경을 초월해 대구의 역사와 함께한 외국인들
3. 신라는 세계로, 세계는 신라로

# 1

## 세상과 이웃을 향한 소통의 도시, 대구

### 【이 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다른 지역과 활발하게 교류해 온 대구의 발자취를 약령시장의 역사를 통해 알아보자. 또 교류와 소통의 의미를 잘 보여 주는 현대의 몇몇 사례를 살펴보자. 아울러 오늘날 국제도시로서 대구의 면모를 보여주는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1920년대 대구 약령시의 활기 넘치는 풍경

조선 8도 상인들이  
와글와글~

“우리 조선의 백성들이 약재를 편히 사고팔 수 있도록 경상감영이 있는 대구에 약령 시장을 여는 것을 윤휴(허락)하노라!”

조선 17대 임금이인 효종의 통치 시절(1658)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를 계기로 경상감영 북문 근처의 뜰에는 봄, 가을마다 한 달간 약령시가 열리게 되었다. 각종 약재를 교환하거나 사고파는 시장인 약령시의 설립을 허가함으로써 대구에는 조선 최대의 약재시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

당시 경상도에 속해 있던 의성, 영천, 합천, 봉화, 영양, 안동, 상주 등은 예로부터 좋은 한약 재료가 많이 나는 고장이었다. 또 대구는 낙동강과 금호강에 접해 있어 약재 등 각종 상품을 배로 수송하기가 편리한 지형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시대의 변화도 대구 약령시의 발전을 도왔다. 대동법(백성들이 세금으로 내던 공물인 지방 특산물을 쌀로 대신한 제도)이 실시되고 정부에서 발행한 화폐인 상평통보가 널리 유통되는 등 상업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 덕분에 대구에서 거래되는 약재의 양이 빠르게 늘어났고, 대구 약령시도 조선 최대의 약재시장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약령시가 열리는 기간이면 경상감영 주변은 조선 8도에서 몰려온 상인들로 붐볐고, 약령시 주변에 있는 객주(식당 겸 숙박 시설)도 상인들로 북적거렸다.

조선 최대 규모인 대구 약령시의 명성은 국경 너머 중국까지 알려졌다. 인삼 등 조선이 자랑하는 약재를 구입하려는 중국 상인들까지 대구를 찾았고, 약령시에서 거래된 물건이 일본으로 수출되기도 했으니, 말하자면 약재를 거래하는 ‘글로벌 시장’이 된 것이다. 이렇게 여러 지방이나 나라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면 이런저런 정보도 주고받게 되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서문시장, 염매시장, 칠성시장, 남문시장

**대구의 오래된 시장, 여기도 있다!**

**서문시장**

조선 중기에 생긴 시장으로 오늘날에도 대구에서 가장 유명한 시장이다. 대구 사람들은 서문시장을 '큰장'으로 부르기도 한다.

**염매시장**

대구 약령시가 있는 남성로에 있다. 조선 말기 대구읍성이 강제 철거되고 약령시가 현재 위치로 옮겨올 때 약령시 근처에 생긴 시장이다.

**칠성시장**

일제강점기에는 과일, 채소를 주로 거래하던 조그만 시장이었는데, 1946년 '북문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상설시장이 열렸다. 그 후 북문시장을 중심으로 상가 건물이 하나둘 생기면서 지금은 대구에서 최대 면적을 자랑하는 시장이 되었다.

**교동시장 & 남문시장**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난 후 대구의 인구는 늘어났다. 전쟁 시기에 대구에는 새 시장이 여럿 생겼다. 교동시장과 남문시장 같은 곳들이었다.

므로 대구가 약재뿐만 아니라 정보의 교류가 이뤄지는 도시가 된 것은 물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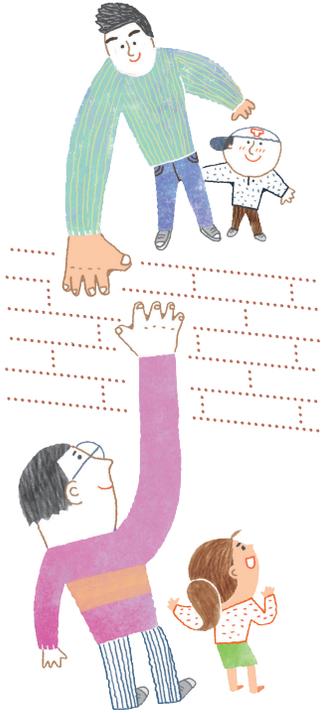
1908년 대구 약령시장이 남성로로 자리를 옮긴 후 1910년 한일강제합병으로 시작된 일제강점기에는 약령시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일제의 거래 제약 조치로 수난을 겪은 것인데, 대구의 약재 상인들은 이 어려운 시기를 꿋꿋이 인내하며 전국 최고 약령시장의 전통을 지켜냈다. 약령시장 상인 중에는 장사로 모은 돈을 독립자금에 보탠 사람들도 있었다.

대구 약령시의 유명세는 지금도 여전하다. 2001년 한국기네스위원회는 300년 역사를 훌쩍 넘긴 대구 약령시장을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약령시로 인증했다. 또 2004년에는 정부가 한방 관련 분야 최초로 한방특구로 지정하는 경사도 따랐다. 오늘날에도 한약상이 즐비한 남성로 거리에선 매년 5월 '대구 약령시 한방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다.





서구청 담장허물기운동 발원지 기념 조형물



1996년, 대구에서 최초로  
담장허물기운동이 시작되다

1996년 10월 어느 날, 대구시 서구청에서 이상한 공사가 시작되었다. 해머 등을 든 인 부들이 담장을 허물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본 주민 대부분은 “멀쩡한 담을 왜 허물어?”, “새 담장을 세우려나? 쓸데없는 예산 낭비 아니야?” 하며 의아해했다.

그러나 새 담장은 들어서지 않았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서구청에는 담장이 없다. 담 장이 있었던 자리엔 나무와 꽃과 분수대, 벤치 같은 시설이 들어서 있을 뿐. 그리고 하 나 데! 이곳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담장허물기운동이 시작된 ‘곳’임을 알리는 표지 도 함께 서 있다.

1996년 당시만 해도 공공기관 건물은 어느 건물보다 튼튼한 담장으로 둘러싸인 경우 가 대부분이었다. 1996년 대구에서는 행정기관, 시민단체 등 115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 한 민관협의체인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가 뜻을 모아 담장허물기운동을 추진했다.

서구청을 시작으로 한 대구의 담장허물기사업은 우려와 달리 금세 시민들의 호평을 받았다. 멀쩡한 담을 허무는 게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이런 분 위기에 힘입어 대구 도심에 있는 경북대학병원 등 여러 건물의 담장들도 하나둘 사라져 갔고, 민간의 아파트 단지 풍경까지 바꾸기 시작했다. 이렇게 퍼져 간 담장허물기운동의 결과, 시작한 지 20년이 지나자 대구에서 사라진 담장의 길이는 약 30km에 달했다.

대구가 일군 성과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물론이다. 대한민국 여러 도시의 공무원들이 대구로 견학을 왔다. 관심은 곧 해외로도 먼저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공무원들도 견학을 위해 다녀갔다.



코로나19가 완치되어 대구로 떠나는 사람들을 배웅하는  
광주시민과 관계자들

**대구와 광주의 '달빛동맹'  
더 가까워진 두 도시의 인연**

2020년 3월 4일, 대구에서 출발한 구급차가 광주광역시에 있는 빛고을전남대병원에 들어섰다. 구급차에는 대구 지역 코로나19 경증 감염자들이 타고 있었다. 구급차가 도착한 병원에서는 인근의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이 그들을 맞아주었다.

“광주와 대구는 달빛동맹을 맺은 형제입니다. 여러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달빛동맹’이란 2013년 광주시와 대구시가 서로 교류·협력을 활발히 하자며 맺은 협약의 명칭으로 ‘달빛’의 ‘달’은 대구의 옛 이름인 달구벌에서, ‘빛’은 광주의 우리말 이름인 빛고을에서 따온 것이었다.

달빛동맹이 만들어진 후 두 도시는 상호협력, 교류행사를 보다 활발하게 이어 오고 있다. 대구에서 열린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 광주시장이,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대구시장이 참석해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함께 되새겼다.

이런 상징적인 왕래 말고도 시민들 사이에선 보다 긴밀한 교류가 활발히 펼쳐졌다. 대구와 광주 시민들이 상대 도시의 명산인 무등산과 팔공산을 서로 방문해 본다든가, 두 도시의 시립미술관에 소장된 작품들을 교환 전시하는 식이었다.

2020년에 들이닥친 코로나19 위기는 두 도시의 인연을 더 가깝게 해준 계기였다. 3월에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대구에 병상이 부족해지자 광주시가 대구 환자 32명에게 광주의 병상을 내어 준 것이다. 이 시기에 광주시의사회는 달빛의료지원단을 구성해 대구를 찾기도 했다.

당시 광주에서 치료받은 대구 코로나 확진자들은 완치되어 무사히 귀가했다. 환자와 가족들은 편지와 성주참외 등의 선물을 보내며 고마움을 표현했다고 한다.



**더 넓어진  
대구-광주 직통 고속도로**

1984년 대구와 광주를 잇는 88올림픽고속도로가 개통됐다. 아스팔트 대신 콘크리트를 써서 포장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였다. 단점은 왕복 2차로여서 통행에 불편이 있었다는 것. 그 후 31년 만인 2015년에 도로 전 구간이 왕복 4~6차선으로 확장됐고, 도로명이 광주대구고속도로로 바뀌었다. 길이가 176km인 이 도로는 대구에서 시작해 경상남도 함양군-전라북도 남원시 지역을 거쳐 광주를 연결한다.



대구광역시의 이름을 세계에 알린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대구



대구  
지식플러스

여러 국제 행사를  
거뜰히 개최한 대구

2003년

세계 대학생 스포츠 대회인  
유니버시아드대회(하계 대회)  
가 열렸다.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World Energy  
Congress)를 유치하였다.  
94개국의 회원국과 에너지업  
계, 정부관계자, 관련 국제기  
구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국  
제 행사였다.

2015년

경북과 공동으로 제7차 세계  
물포럼을 개최하였다. 세계물  
포럼은 세계 물의 날(3월 22  
일) 전후로 3년마다 열리는 행  
사로 세계의 정부 관계자들,  
물 관련 전문가와 NGO 등이  
참가한다.

2007년 3월 27일 아프리카의 케냐에서 대구로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대구가 제 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도시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케냐에서 열린 국제 육상경기연맹(IAAF) 집행이사회가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경쟁 도시인 모스크바(러시아), 브리즈번(호주) 등을 제치고 선정된 것이다. 당시 대구 시민이 보여준 적극적인 지지는 대회 유치에 커다란 동력이 되어 주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올림픽,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 꼽힌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FIFA 한·일 월드컵을 개최한 적은 있지만,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치른 경험은 없었다. 따라서 대구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 성공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3대 스포츠 이벤트 모두를 개최한 일곱 번째 나라가 됐음을 알리는 신호였던 것.

2011년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펼쳐진 이 스포츠 제전에는 203개국에서 1,945명(남자 1,046명/여자 899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이처럼 큰 대회다 보니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절실했다. 이에 많은 이들의 참여가 있었다. 자원봉사자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6개의 색깔로 구분된 유니폼을 입고 이틀에 한 번, 하루 8시간씩 자원봉사에 참여했다.

학생, 직장인, 주부를 포함해 참으로 많은 대구 시민과 타 지역민까지 합세한 스포츠 축제였다. 대회는 이처럼 국민적인 협조 속에서 대구스타디움을 비롯해 시내 곳곳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됐고,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었다.



**대구와 교류하는  
세계의 도시들**

대구시는 1981년 미국 애틀랜타시를 시작으로 여러 도시와 자매도시 사이가 되었다. 대구시는 현재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남미와 아시아권의 여러 나라들과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자매도시는 도시 간에 문화를 교류하고 그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 친선관계를 맺은 도시를 뜻한다. 자매도시가 행정적 결연체제를 맺은 상태라면 우호협력도시는 그 전 단계이다.

대구공항에 처음으로 여객기가 취항한 것은 1961년이였다. 대구와 서울을 오가는 국내선이 전부였다. 그러나 1996년 오사카행 국제선이 개설되면서 대구공항은 국제공항이 되었고, 지금은 국내에서 다섯 번째로 이용객이 많은 공항이 되었다. 현재 대구에서 취항하고 있는 국제 노선은 많다. 중국 노선으로는 상하이, 베이징, 선양 등이 있고 일본 쪽에는 도쿄, 오사카, 삿포로, 오키나와, 가고시마, 구마모토 등에 취항한다. 동남아 노선에는 홍콩, 마카오, 타이베이, 방콕, 세부, 하노이 등이 있으며, 이 외에 러시아 2개 노선과 괌 노선이 있다.

**대구  
지식 플러스**

- 자매도시
  - 미국 애틀랜타시, 밀워키시
  - 카자흐스탄 알마티시
  - 중국 칭다오시, 닝보시, 청두시
  -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주
  - 일본 히로시마시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시
  - 불가리아 플로보디프시
  - 대만 타이베이시
  - 이탈리아 밀라노시
  - 베트남 다낭시
  
- 우호협력도시
  - 중국 양저우시, 옌청시, 선양시, 사오싱시, 우한시, 창사시
  - 일본 고베시
  - 베트남 호치민시
  - 태국 방콕시
  - 대만 가오슝시
  - 베트남 박닌성
  - 프랑스 릴 메트로폴시

# 2

## 국경을 초월해 대구의 역사와 함께한 외국인들

### [이 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조선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많은 외국인에게 대구는 제2의 고향이 되었다. 대구에서 살며 이 지역의 삶과 풍습, 문화와 전통을 함께 나눈 외국인 중에는 대구의 역사에 무척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긴 이들도 있었다. 낯선 이국의 땅에서 제2의 고향을 일군 그 이방인들의 생애를 마주해 보고자 한다.



2012년 녹동서원 내에 세워진 달성 한일우호관

태어난 곳은 달랐으나  
조선인으로 생을 마치다

### 우록동에 정착한 일본인 장수 사야가(김충선)

1794년(정조 18)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에 있는 우록동에 녹동서원이 들어섰다. 김충선이라는 사람을 추모하는 서원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김충선이 원래는 일본 출신의 장수였다는 사실이다. 서원이란 곳은 훌륭한 유학자를 추모하기 위해 세우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조선에 상륙한 일본 침략군 중에는 가토 기요마사가 지휘하던 부대가 있었다. 이 부대의 우선봉장이 사야가라는 장수였는데, 어릴 때부터 일본에 유학을 전해준 조선의 문화를 흠모했던 그였기에 일본의 조선 침략이 옳지 않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사야가는 조선에 도착한 후 자신의 신념에 따랐다. 뜻을 같이하는 병사들을 이끌고 조선에 귀화한 것이다. 이후 그는 임진왜란 때 조선군 지휘관으로 활약했다. 전쟁 때 큰 공을 세운 그에게 조선의 왕 선조는 직접 새 이름을 내려주며 공로를 치하했다. 이때부터 그의 이름은 사야가가 아닌 김충선이 되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김충선은 대구 우록동에 정착했다. 그 후로도 그는 여러 번 장수의 임무를 수행했다. 조선의 북쪽 국경을 지키기도 했고, 병자호란 때에는 청나라에 맞서 조선을 지키고자 앞장서서 싸웠다.

그 후 김충선은 1642년 죽을 때까지 글을 쓰고, 우록동 주민에게 유학을 보급하는 일에 전념했다. 무사로 태어나 선비로 생을 마감한 김충선을 위해 조선의 유학자들은 출신 국적을 따지지 않고 그의 업적을 기렸다. 녹동서원은 그런 마음으로 세워진 곳이다.



두사충의 사당인 모명재. 모명재란 이름에는 고국 명나라를 사모하는 뜻이 담겨 있다.



**대구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적 증서 수여식**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해서 그 나라 국민이 되는 것을 '귀화'라고 한다. 대한민국에 귀화하려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계화 시대인 까닭에 우리나라에 귀화하는 사람은 날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에는 연예인, 운동선수도 있다.

대구에도 귀화해 대구 시민이 된 이들이 많이 살고 있다. 2019년 12월 12일에도 대구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문화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적 증서 수여식에 125명이 참가해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 국적 증서 수여식에서 귀화자들은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하게 된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명나라 출신 계산동 주민, 두사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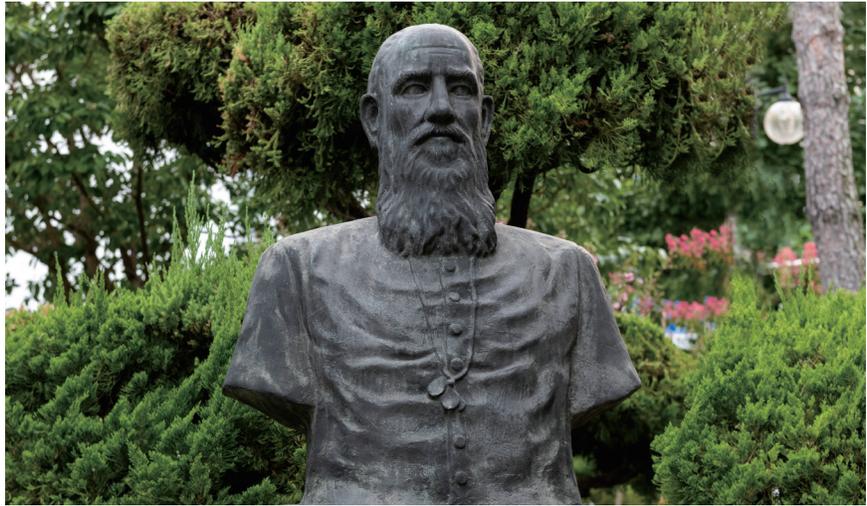
임진왜란이 일어나 위기에 빠진 조선이 원군을 요청하자 명나라는 이여송에게 5만여 지원군을 주어 조선으로 파견한다. 이여송의 휘하 장수 가운데 두사충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맡은 주 임무는 지형을 잘 살펴서 진지를 설치하기에 좋은 장소를 찾아 내는 일이었다.

두사충이 대구에 처음 발을 내딛은 것은 남쪽으로 후퇴하는 일본군을 상대로 조선과 명나라의 군대가 연합작전을 벌였을 때였다. 작전 수행을 위해 그는 풍수지리에 밝은 눈으로 대구의 지리를 살폈을 터이다. 아마도 그때 대구의 산과 강, 들과 마을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

‘대구라는 곳, 사람이 살기에 참 좋은 땅이로구나!’

임진왜란 동안 두사충은 명나라 장수 이여송, 진린을 도와 조선의 승리에 힘을 보탰다. 전쟁이 끝난 후에 귀국하지 않고 조선에 남기로 결심하자 그의 공적을 인정한 조선 정부도 대구에서 가장 좋은 땅을 내주며 두사충의 정착을 지원했다.

그 후 10년도 되지 않아 1601년 그 자리에 경상감영이 들어서게 되자, 두사충은 새로이 계산동에 집을 짓고 이사해 거기에서 남은 인생을 보냈다. 집 주변에 뽕나무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지금도 계산동에는 뽕나무골목이라고 부르는 장소가 남아 있다.



대구 지역에 가톨릭을 전파한 김보록 로베르 신부의 흉상

대구 최초의 성당을 세운  
벽안의 프랑스 신부



계산성당에서  
사제 서품을 받은  
김수환 추기경

1951년 계산성당에서 한 젊은 신학생이 사제 서품을 받았다. 그는 훗날 한국 천주교를 이끄는 최고지도자인 추기경이 된다. 그의 이름은 김수환이었다. 김수환은 추기경으로 있을 때나 그 자리에서 물러난 후에도 천주교 신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교회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종교적인 양심으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다.

두사충이 정착한 동네인 계산동에 1899년 대구 최초의 성당이 들어섰다. 프랑스 출신의 로베르 신부(한국 이름 김보록)가 세운 계산성당이였다. 불운하게도, 애초에 한국 식 목조 건물로 지어진 성당은 지은 지 2년쯤 되어 화재로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이 일로 로베르 신부가 낙담해 의욕을 잃은 것은 아니다. 그는 말했다.

“여러분! 성당을 다시 세웁시다. 돌과 벽돌로 더 튼튼하게 지읍시다.”

신부의 말에 교인들 역시 “저희 신자들도 건축비를 보태겠습니다.”라며 적극적으로 나섰다.

새로 짓는 성당의 설계와 공사 감독은 로베르 신부가 직접 맡았고, 공사에는 중국에서 건너온 기술자들도 참여했다. 마침내 1902년, 2개의 종탑을 가진 고딕 양식의 성당이 완공되었다. 대구 최초의 서양식 건물이었다. 축성식은 다음해인 1903년에 열렸는데, 조선 각지의 천주교 신자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 일반 주민들까지도 구경을 왔다고 한다. 많은 이들이 모인 자리는 마치 흥겨운 잔칫날과도 같은 분위기였다.

대구는 조선에서 비교적 일찍 천주교가 보급된 도시였다. 1911년 대구교구 주교좌 성당으로 승격된 후 계산성당은 경상도 천주교 전파의 중심지가 되었다. 100년을 훌쩍 넘긴 성당 건물은 현재 국가 지정 사적지 제290호로 보호받고 있다. 성당의 정원에 가면 로베르 신부의 업적을 기억하기 위해 세워진 흉상 조각을 만날 수 있다.



대구화교협회 건물.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이 건물은 1929년에 건립되었다.

**종로 거리 곳곳에 스민  
화교들의 전통과 문화**

로베르 신부와 대구의 천주교인들이 힘을 모아 계산성당을 다시 세울 때 함께 일한 외국인들이 있었다. 바로 중국인 벽돌공사 기술자들이었다. 그들은 계산성당 외에도 당시 대구에 하나둘 들어서던 서양식 건물 건축에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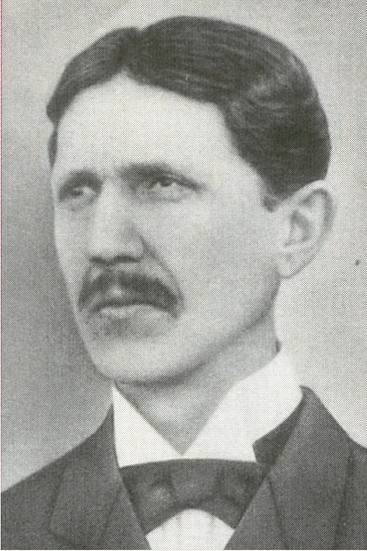
대구에 중국인들의 정착이 시작된 때는 1905년 서울-부산을 잇는 경부철도가 개통된 시기부터였다. 말하자면 대구 화교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인데, 화교란 중국이나 타이완(대만) 국적을 지닌 채 외국에 정착해 사는 중국인을 가리킨다. 대구에 등지를 튼 화교들은 건축 외에도 여러 분야에 종사했다. 양조장이나 벽돌공장, 음식점 등 업종도 다양했다. 그들은 대대로 물려받은 중국 고유의 풍속과 전통을 지켜 나가면서 대구 역사의 일부가 되었다.

처음에 화교들은 대구의 중심가였던 종로 거리에 많이 모여 살았다. 1907년 대구읍성이 완전히 철거되고 난 후 이 거리에 들어선 많은 상점들 중에는 중국인 가게가 많이 있었다. 오늘날 종로 거리에서는 해마다 '대구화교중화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다. 대구에 정착한 중국인의 역사와 그들의 전통문화를 기념하는 행사로 거리 퍼레이드에서 중국 전통춤인 사자춤, 용춤을 구경할 수 있다.

지금도 대구에는 1905년 이주를 시작한 중국인들의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다. 종로 거리에 가면 중국인 학생들이 공부하는 대구화교소학교를 볼 수 있다. 화교들 가운데 중국음식점을 경영하는 이들의 가게 중엔 대구의 맛집으로 소문난 곳들이 있다.



2019 대구화교중화문화축제 포스터



**우드브리지 존슨**

젊은 선교사로 한국을 찾은 미국인 우드브리지 존슨은 1899년 대구 약령시장 근처에 제증원을 설립했다. '많은 사람들을 구한다'는 뜻을 가진 이름인 제증원은 대구 최초로 세워진 서양식 의료 기관이었다. 1899년 개원한 이후 제증원은 1901년까지 약 2000여 명의 환자를 보살폈으며,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1903년 대구시 중구 동산동으로 이전했다. 제증원이 동산기독병원(현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의 전신)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 1911년이였다.



**아서 맥타가트**

아서 맥타가트는 1953년 미국 국무부 산하 주한 미국대사관에 부임하면서 한국과 인연을 맺었다. 1976년 국무부에서 퇴직한 그는 영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부임했고, 1997년 퇴임할 때까지 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그는 월 30만 원 안팎의 최소 생활비로 청빈한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를 제외한 월급과 연금을 모두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버스비까지 아끼려고 먼 거리를 걸어다니며 모은 돈은 제자 200여 명의 장학금으로 사용되었다. 현재 영남대학 인문관 1층 로비에는 그의 삶과 업적을 기념하는 흉상이 있다.



**엠마 프라이싱거**

1961년 오스트리아 출신의 한 수녀가 천주교 대구대교구 초청으로 한국에 왔다. 당시 29세였던 그 수녀의 이름은 엠마 프라이싱거였다. 프라이싱거 수녀는 이때부터 50년이 넘도록 한센병 환자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 가난하고 소외된 한센인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고, 가톨릭피부과위원을 세워 의술을 베풀었다. 프라이싱거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한국에서 열린 세계한센포럼에서 특별상을 받았다. 사람들은 프라이싱거 수녀에게 '한국의 마더 테레사'라는 명예로운 별명을 붙여 주었다.



## 달빛동맹의 의의와 이를 통해 우리 대구가 이어 가야 할 소통의 정신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대구와 광주의 달빛동맹은 두 도시 간의 단순 자매결연이 아닙니다. 대구와 광주는 경상도와 전라도를 대표하는 도시이며 역사적, 정치적으로 반목과 갈등이 심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지역감정을 자극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두 도시는 쉽게 친해지기 어려운 곳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듯이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으면 아흔아홉 가지 장점은 보지 않고 한 가지 단점만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단점으로 생각하게 되며, 아주 사소한 단점조차 돋보기로 확대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관계에서 과연 협력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두 도시가 달빛동맹을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나라의 위기에 맞서 함께 싸우고 연대한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채보상운동이 그랬고, 항일학생운동이 그랬으며, 2·28이나 5·18처럼 우리 현대사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한 정치 민주화운동이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오늘의 달빛동맹을 낳은 저력입니다. 이를 위해 두 도시의 시민은 서로를 존중하고 다 함께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이럴 때 작은 반목이나 갈등은 더 큰 연대 앞에서는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서로 선입견을 배제한 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문제 없는 일이죠. 그런 마음의 바탕 위에서 존중하고 함께하려는 공동체의 마음이야말로 달빛동맹을 더 찬연히 빛내 주지 않을까요?


  
**교실 밖 대구 역사체험**

## 거리 곳곳에서 만나는 대구의 교류 협력사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외부 세계와 널리 교류하고 소통해 온 대구! 그 역사의 발자취를 기억하면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을 가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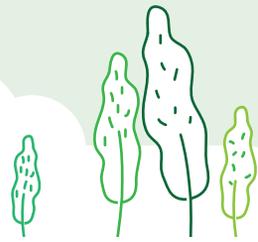
### 대구 약령시 & 한의약박물관

대구 약령시는 남성로에 715m 길이로 펼쳐져 있다. 이 거리에 자리한 약령시한의약박물관은 1985년 문을 연 곳으로, 약령시의 역사와 한의학 지식을 두루 체험할 수 있다. 박물관은 2층 한방체험실, 3층 한방역사실로 이루어져 있다. 한방역사실에 가면 대구 약령시의 유래와 발전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약령시 역사와 문화 ZONE'이 있다. 이곳을 자세히 둘러보면 약령시 역사가 한눈에 들어온다.



### 계산성당 & 뽕나무골목

계산성당은 천주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외부인들도 많이 찾는 대구의 명소이다. 명나라 장수로 임진왜란 후 조선에 귀화한 두사충이 살았던 뽕나무골목은 계산성당 바로 뒤에 있는 아담한 장소이다. 이곳에는 두사충 외에 대구 역사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긴 서상돈, 이상화 같은 인물이 살았던 집들도 잘 복원되어 있다.



### 모명재

두사충은 조선에 살면서도 명나라를 잊지 않았다. 자기의 호를 '모명(慕明)'이라고 지은 이유도 그래서였다. '명나라를 그리워한다'는 뜻으로, 모명재는 두사충의 후손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세운 사당이다. 뽕나무골목에서 멀지 않은 반월당역에서 대구지하철 2호선을 타고 담티역에 내리면 그 근처에 모명재가 있다.

### 녹동서원 & 한일우호관

김충선을 추모하는 녹동서원은 대구시 달성군에 있다. 2012년 녹동서원 한 편에 한일우호관이라는 기념관이 세워졌다. 임진왜란 때 침략 전쟁을 반대한 김충선의 정신을 기억하고, 한국과 일본 사이의 우호와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세운 기념관이다.



###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의료박물관, 선교박물관

계산성당 서쪽 청라언덕에는 미국 선교사들이 지낸 집이 몇 채 보존되어 있다. 20세기 초 대구에 기독교를 전파한 이들의 집이었는데, 이 중 두 건물에 의료박물관과 선교박물관이 들어서 있다. 의료박물관은 1800~1900년대 시기의 의료기기들을 다양하게 전시하고 있으며, 선교박물관에서는 각종 성경과 선교 유물 등을 볼 수 있다.

# 3

## 신라는 세계로, 세계는 신라로

### 【이 단원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삼국통일을 이룬 후 신라는 당나라, 일본과 활발한 문화 교류를 이어 갔다. 특히 당나라는 신라에게는 문화 중주국과 같았다. 신라의 젊고 재능 있는 학생과 승려들에게 당나라는 꼭 한번 다녀오고 싶은 꿈의 유학지였다. 불교 공부든 유학 공부든 배움을 위해 당나라를 향한 신라인들의 기록을 살펴본다. 그리고 동·서양 문화 교류의 증거인 실크로드의 흔적을 국내 출토 유물로 찾아보기로 한다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이 유명한 사찰 영주 부석사

불법 공부를 위해  
당나라로 향한 승려들

### 벼슬을 마다하고 불교 공부에 힘쓴 자장

590년 신라의 귀족 집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청년 시절부터 불교 공부에 심취한 그는 자장이라는 법명을 가지게 되었다. 신라의 왕은 자장이 똑똑한 것을 알고 그를 재상으로 임명하려고 했다. 그러나 자장은 불교를 더 깊이 공부하기 위해 선덕여왕 5년(636)에 당나라로 건너갔다. 워낙 출중한 인재였기에 스님으로서 그의 명성은 머지않아 널리 퍼졌고, 당나라 황제마저 그를 공손하게 대접할 정도로 탐을 냈다고 한다. 그러나 자장 같은 인재가 신라를 위해 일해 줄 것을 바란 선덕여왕은 당나라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 자장을 놓아 달라며 부탁을 하게 된다.

신라로 돌아온 자장은 왕에게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탑을 세우자고 제안해, 황룡사구층탑이 세워지게 되었다. 또 진덕여왕 때에는 당나라의 연호와 복식제도를 도입하자고 건의해 시행되도록 하였다.

### 의상, 당에서 돌아와 신라에 절을 세우다

자장에 이어 당나라 유학을 다녀온 또 한 사람의 승려가 바로 신라 불교를 크게 발전시킨 의상이었다. 625년에 태어나 19살에 승려가 된 그는 당나라 유학을 떠났지만 그의 첫 유학길은 신라-고구려 국경에서 고구려군에게 붙잡히며 실패로 돌아갔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의상은 당나라로 가서 8년간 공부하고 귀국을 결심했는데, 그때 그는 걸음을 몹시 재촉해 신라로 돌아왔다고 한다. 『삼국유사』에는 당시 당나라의 신라 침략 계획을 미리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한다. 돌아온 이후 그는 젊은 승려들을 가르치고 신라



경주 황룡사터 가운데 구층목탑이 있던 자리

백성에게 불교를 전파하는 데 앞장서는 한편 신라 땅 곳곳에 많은 절을 세워 나갔다. 그 중 특히 유명한 사찰이 바로 676년 현재의 경상북도 영주시에 세운 부석사이다.

### 중국을 넘어 인도를 여행한 혜초

혜초는 소년 시절인 719년에 당나라로 불법 공부를 떠났다. 중국에서 인도 출신 승려로부터 불교의 한 종파인 밀교를 배웠고, 그 영향으로 인도 여행을 결심하기에 이른다. 불교 성지를 둘러보고 밀교 공부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였다.

723년경 마침내 혜초는 인도를 향해 떠났다. 그리고 4년 동안 인도를 비롯해 중앙아시아 지역들을 여행하며 자신이 본 것을 『왕오천축국전』으로 남겼다. 이후 중국으로 돌아온 혜초는 불경을 번역하고 불교 진리를 탐구하다가 787년 중국 땅에서 입적했다. 혜초의 인도 여행은 세계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업적으로 꼽힌다. 『왕오천축국전』은 8세기 인도, 중앙아시아와 관련한 대단히 희귀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 신라 유물에 담긴 실크로드 문명의 빛

실크로드는 고대 동양과 서양이 문명 교류를 하던 길이다. 중국의 중원 지방에서 시작해 타클라마칸사막, 파미르고원, 중앙아시아 초원지대, 이란고원을 지나 지중해 동쪽에 이르는 길이 약 6,400km에 이르는 길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라의 수도 경주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과 비슷한 것이 여럿 있다. 정확한 기록이 없어 누가, 언제, 어떻게 경주와 실크로드를 오고 갔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신라가 실크로드 문명과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확실하다. 몇 가지 유물에서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 경주 계림로 14호 무덤 출토 황금보검

1973년 경북 경주 대릉원 동쪽에서 도로공사를 하던 중 여러 개의 무덤이 드러났다. 그중 14호 무덤에서 120여 점의 신라시대 유물이 나왔다. 출토 유물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화려하고 정교하게 세공한 길이 36cm의 황금보검이었다.

고고학자들은 이것이 신라 자체의 생산품이 아니라 수입된 것으로 추측하였다. 놀라운 사실은 경주에서 약 5,000km 떨어진 옛 실크로드 지역, 곧 지금의 카자흐스탄에서도 경주의 황금보검과 매우 유사한 검이 출토되었다는 점이다.

### 경주 98호 남쪽 무덤 출토 유리그릇들

경주시 황남동 미추왕릉 지구에 있는 신라 무덤 황남대총에서 발굴된 문화재 중에는 유리로 만든 병과 잔도 있다. 경주 98호 남분 유리병 및 잔으로 명명된 이 유물들은 국보 제193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유리의 질, 형태, 색깔이 흔히 로만글라스라고 불리는 것이었다.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출토되는 이 유물 역시 신라가 실크로드 지역과 교류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 송림사 전탑 출토 유리사리병과 금동사리기

대구에서 가까운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 송림사라는 오래된 절이 있다. 1959년 절에 있는 탑을 해체하여 수리할 때 높이 6.3cm의 녹색 유리사리병과 이것을 보관하는 금동사리기가 나왔다. 금동사리기는 정교한 세공기술로 눈길을 끌었고, 사리기에 모서진 녹색의 유리사리병은 한반도에서 나온 사리함 중 유일하게 유리로 만든 것이라 더 큰 주목을 끌었다. 이 유리사리병 역시 신라와 실크로드의 문명 교류를 증언해주는 것이었다. 보물 제325호인 이 금동사리기는 국립대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경주 고분에서 나온 유리그릇들.  
신라가 실크로드를 통해 외국의 여러 나라들과 교류했음을 알려준다.



송림사 전탑에서 나온 금동사리기.  
녹색의 유리병 안에 사리가 안치되어 있다.

경주 계림로 14호 무덤에서 나온 황금보검



경주 상서장. 최치원이 임금에게 글을 올리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당나라 과거도 정복했다!  
신라의 세 천재

## 우리 고사 지식 플러스

### 동아시아 바다를 주름잡은 신라인 장보고

장보고는 청년 시절 당나라로 건너가 그곳에서 군인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한편으로는 중국의 항구에 드나드는 일본, 인도, 아라비아 등 각국 상인들과 접하며 세상에 대한 안목을 넓혔다. 훗날 신라로 돌아와 흥덕왕을 설득해 오늘날의 완도에 청해진 해상기지를 설치했다. 청해진의 총책임자가 된 그는 일본 해적을 소탕하며 바다의 패권을 잡아 나갔고, 이를 발판으로 당나라-신라-일본을 잇는 중계무역을 할 수 있었다. 해상권을 장악하며 엄청난 부까지 손에 쥐었지만, 결국 장보고의 최후는 불행했다. 평민 신분에서 신라의 권력자가 된 장보고는 경주에서 일어난 권력다툼에 휘말리게 되었고, 자객에게 암살당하였다.

### 신라 부흥을 위해 노력한 천재 최치원

868년 12살 어린 나이로 당나라 유학을 떠난 최치원. 당나라에서 그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치르던 '빈공과'라는 과거에 합격해 당나라 관료로 근무했다. 신라 귀국 후에는 나라의 혼란을 바로잡고자 진성여왕에게 개혁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후 벼슬을 포기하고 이곳저곳을 떠돌며 은둔생활을 했다.

### 최승우, 후백제 견훤의 신하가 되다

최치원-최언위와 함께 3최로 불린 최승우 또한 890년 당나라로 유학해 893년 빈공과에 급제했다. 하지만 그는 최치원처럼 귀국 후 신라를 위해 애쓰지 않았다. 정치가 혼란한 신라 수도 경주로 돌아가지 않고 후백제 견훤의 신하가 되는 길을 택한 것이다.

### 새 나라 고려의 발전에 힘쓴 최언위

최언위는 885년 당나라에 유학해 과거에 합격한 후 909년 신라로 돌아왔다. 하지만 신라는 머지않아 경순왕이 고려에 투항함으로써 고려에 통합(935년)되고 만다. 이때부터 그는 고려의 왕자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 그 후에 여러 벼슬을 하면서 새 나라 고려의 발전에 힘썼다.